

객체지향프로그래밍 정리노트(Week6)

202004029 김정호, 202004040 노성민

Q1. 함수 재정의와 오버라이딩 사례 비교

```
class Base {
public:
    void f() { cout << "Base::f() called" << endl; }
};
class Derived : public Base {
public:
    void f() { cout << "Derived::f() called" << endl; }
};
```

- 함수 재정의(redefine) -

```
class Base {
public:
    virtual void f() { cout << "Base::f() called" << endl; }
};
class Derived : public Base {
public:
    virtual void f() { cout << "Derived::f() called" << endl; }
};
```

- 오버라이딩(overriding) -

김정호: 위의 함수 재정의 예시는 만약 Derived a; 선언하여 a 객체를 생성했을 때, a 객체에게 동등한 호출 기회를 가진 함수 f()가 두 개 존재하고, 오버라이딩 사례를 보면 마찬가지로 함수 f()가 두 개 존재하지만 virtual을 사용한 함수는 오버라이딩되어 기본 클래스 f() 함수가 존재감을 잃고 Derived의 f()가 호출돼.

Q2. 9-3 상속이 반복되는 경우 가상 함수 호출

```
#include<iostream>
```

```
using namespace std;
```

```
class Base {
public:
    virtual void f() { cout << "Base::f() called" << endl; }
};
class Derived : public Base {
public:
    void f() { cout << "Derived::f() called" << endl; }
```

```
};
class GrandDerived : public Derived {
public:
    void f() { cout << "GrandDerived::f() called" << endl; }
};
int main() {
    GrandDerived g;
    Base* bp;
    Derived* dp;
    GrandDerived* gp;
    bp = dp = gp = &g;
    bp->f();
    dp->f();
    gp->f();
}
```

노성민: 우선 코드를 보면 f() 함수가 오버라이딩 된 것을 알 수 있어. 메인 함수를 보면 GrandDerived 클래스의 g 객체가 생성되었고 각 클래스의 포인터를 선언하여 g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. 따라서 결과가 모두 GrandDerived::f() called가 출력될 것이야.

Q3. 예제 9-6 소멸자를 가상 함수로 선언

```
#include <iostream>
using namespace std;
class Base {
public:
    virtual ~Base() { cout << "~Base()" << endl; }
};
class Derived : public Base {
public:
    virtual ~Derived() { cout << "~Derived()" << endl; }
};
int main() {
    Derived* dp = new Derived();
    Base* bp = new Derived();
    delete dp; // Derived의 포인터로 소멸
    delete bp; // Base의 포인터로 소멸
}
```

김정호: 소멸자를 가상 함수로 선언하였는데, 우선 delete dp; 이 부분에서는 가상 함수로 선언하지 않았어도 소멸자 실행 시 두 개의 소멸자가 실행될 거야. 하지만 delete bp; 이 부분은 소멸자가 가상 함수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파생 클래스가 자신의 클래스를 실행 후 기본 클래스의 소멸자를 호출하도록 컴파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소멸자가 실행돼. 따라서 결과는

~Derived()

~Base()

~Derived()

~Base() 이런 식으로 출력될 거야.

Q4. 동적 바인딩 실행 : 파생 클래스의 가상 함수실행

```
#include <iostream>
#include "Shape.h"
#include "Circle.h"
#include "Rect.h"
#include "Line.h"

using namespace std;
int main() {
    Shape* pStart = NULL;
    Shape* pLast;
    pStart = new Circle(); // 처음에 원 도형을 생성한다.
    pLast = pStart;
    pLast = pLast->add(new Rect()); // 사각형 객체 생성
    pLast = pLast->add(new Circle()); // 원 객체 생성
    pLast = pLast->add(new Line()); // 선 객체 생성
    pLast = pLast->add(new Rect()); // 사각형 객체 생성
    // 현재 연결된 모든 도형을 화면에 그린다.
    Shape* p = pStart;
    while (p != NULL) {
        p->paint();
        p = p->getNext();
    }

    // 현재 연결된 모든 도형을 삭제한다.
    p = pStart;
    while (p != NULL) {
        Shape* q = p->getNext(); // 다음 도형 주소 기억
        delete p; // 기본 클래스의 가상 소멸자 호출
        p = q; // 다음 도형 주소를 p에 저장
    }
}
```

김정호: 우선 pStart, pLast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 해준 후 처음에는 Circle을 이용하여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했어. 다음에 이제 해당 객체들을 생성해주고 **파란색** 부분을 통해 생성한 객체의 도형을 그리고 **빨간색** 부분을 통해 생성된 도형을 삭제해주는 코드야. 여기서 가상 함수를 오버라이딩하여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draw 함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했어.

Q5. 예제 9-7(실습)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파생 클래스 구현 연습

다음 코드와 실행 결과를 참고하여 추상 클래스 Calculator를 상속받는 Adder와 Subtractor 클래스를 구현하라.

```
#include <iostream>
using namespace std;
class Calculator {
    void input() {
        cout << "정수 2 개를 입력하세요>> ";
        cin >> a >> b;
```

```

}
protected:
    int a, b;
    virtual int calc(int a, int b) = 0; // 두 정수의 합 리턴
public:
    void run() {
        input();
        cout << "계산된 값은 " << calc(a, b) << endl;
    }
};

int main() {
    Adder adder;
    Subtractor subtractor;
    adder.run();
    subtractor.run();
}

```

```

정수 2 개를 입력하세요>> 5 3
계산된 값은 8
정수 2 개를 입력하세요>> 5 3
계산된 값은 2

```

노성민: 우선 Adder, Subtractor 클래스는 Calculator를 상속받아야만 결과처럼 출력이 가능해져. 그리고 Calculator가 추상 클래스이므로

```

class Adder : public Calculator {
protected:
    int calc(int a, int b) {
        return a + b;
    }
};

class Subtractor : public Calculator {
protected:
    int calc(int a, int b) {
        return a - b;
    }
};

```

이렇게 순수 가상 함수로 작성할 수 있어.